2024. 12. 2

소비재/플랫폼 Weekly

생존자 수색기 #6. 당근: 이젠 YONO가 대세

Analyst 오린아 _ 유통/플랫폼 lina.oh@ls-sec.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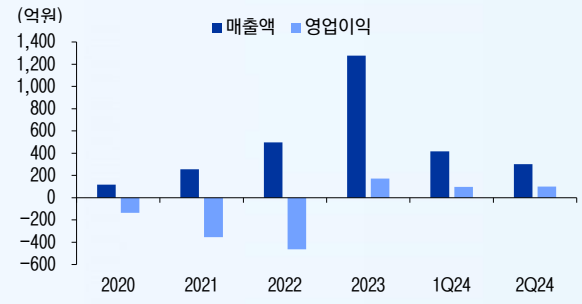
꼭 체크해야 할 업종 이슈

✓ **생존자 #6: 당근, 이젠 YONO가 대세**
고물가와 고금리로 소비자들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며 중고거래 플랫폼이 활성화되었고, 당근마켓은 이에 따른 수요 증가로 2023년 매출 1,276억원, 영업이익 173억원을 기록하며 첫 흑자를 달성. 중고거래 건수와 거래액이 꾸준히 증가하며 당근마켓은 누적투자 2,470억원 유치, 기업가치는 3조원으로 평가받음

✓ **근거리 광고는 당근으로 통한다**
2023년 당근마켓은 광고 수익이 2022년 대비 2.5배 증가한 1,266억원을 기록하며 영업이익 흑자 전환. 반경 타겟팅 광고와 지역 커뮤니티 기능 강화로 광고주와 사용자 체류 시간이 대폭 증가한 것이 주효하게 작용. 극단적 소비 트렌드 지속으로 중고거래와 광고 수익 성장세는 이어질 전망.

이번주 업종 코멘트/전망

그림1 당근 실적 추이: 2023 년 흑자전환, 2024 년도 순항 중



자료: 당근, LS증권 리서치센터

생존자 #6 당근, 이젠 YONO가 대세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YOLO족이 YONO(You Only Need One)로 변화하며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추세. 당근마켓은 필요 없는 물건을 현금화하고, 저렴하게 중고 물건을 구매하려는 수요 증가로 호실적을 기록. 2023년 매출 1,276억원(전년비 +156%), 영업이익 173억원으로 첫 흑자 달성. 올해 상반기 매출은 720억원, 영업이익 200억원을 돌파하며 이미 작년 실적을 초과. 중고거래는 2021년 5,100만 건에서 2023년 6,400만 건으로 증가, 작년 거래액은 5조 1,000억원, 올해 7월까지 4조 4,000억원 기록 추정. 누적 투자금액은 2,470억원이고, 기업가치는 3조원으로 평가받고 있음.

그림2 1H24 연령대/업종별 소비건수 증감률: 2030 세대 하락

업종	2030 세대	타연령대
악세사리점	-18%	-1%
시계전문점	-14%	-3%
고가커피	-13%	5%
기타숙박업	-13%	-2%
기성복점	-12%	2%
일반관광호텔	-11%	4%
귀금속점	-11%	-4%
펜션/민박	-7%	5%
기타관광호텔	-3%	1%
백화점	-3%	4%
저가커피	12%	26%

자료: NH농협은행, LS증권 리서치센터

근거리 광고는 당근으로 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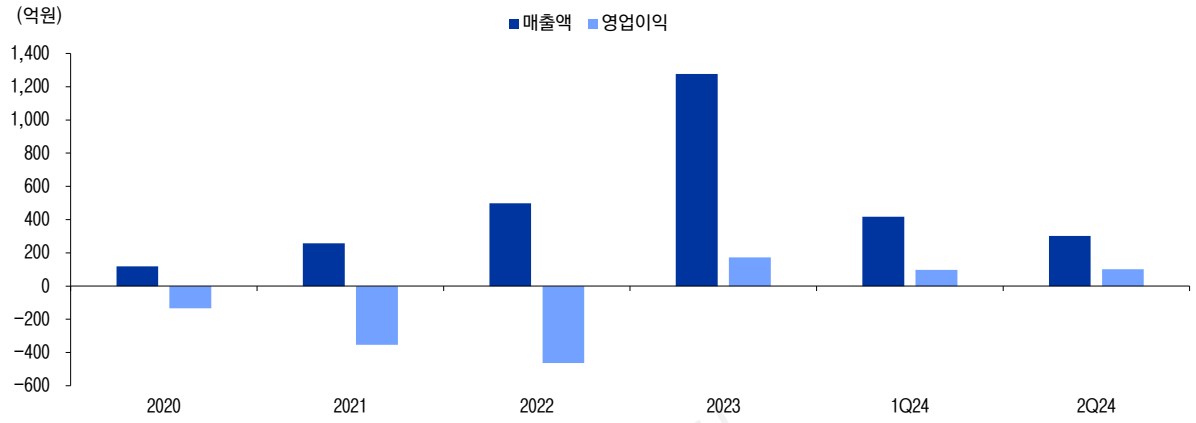
2023년 당근마켓 실적 개선의 주요 원인은 광고 수익 증가. 광고 수익이 2022년 494억원에서 2023년 1,266억원으로 급증하면서 영업이익 흑자를 달성. 반경 타겟팅 광고 도입으로 핵심 고객층에 효율적인 광고 집행이 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광고 매출이 크게 성장함. 반경 타겟팅은 가게 주소지를 기준으로 최소 300m에서 최대 1.5km까지 광고 노출 범위를 설정할 수 있는 상품으로, 지역 커뮤니티 기능 추가로 사용자 체류 시간이 증가한 것도 수익 확대에 기여. 2023년 기준 광고주 수는 2020년 대비 6배, 광고 집행 수는 9배 증가

생존자 수색기 #6: 당근 - 흑전한 당근이세요

이젠 YOLO는 가고 YONO가 대세

고물가, 고금리로 불필요한 소비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이에 한때 각광받았던 YOLO족들이 YONO(You Only Need One)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덩달아 호실적을 누리고 있는 업체는 당근마켓이다. 필요 없는 물건들을 현금화하고, 중고로 사용해도 무방한 물건들은 저렴하게 구매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3년 당근의 매출액은 전년대비 156% 증가한 1,276억원, 영업이익은 173억원, 순이익 24억원으로, 창사 이래 첫 흑자를 기록했다(별도 기준). 올해 상반기 매출액도 1분기 418억원, 2분기 302억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 또한 각각 98억원, 102억원을 기록해 이미 지난 해 연간 실적 규모를 넘어선 상태다. 소비여력이 떨어지면서 중고거래가 활성화하고 있고, 이에 당근마켓 거래 규모는 2021년 5,100만건에서 2023년 6,400만건으로 증가했다. 지난 해 거래액은 5조 1,000억원 수준이었고 올해 7월까지 4조 4,000억원의 거래액을 기록했다. 누적 2,47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기업가치는 3조원으로 평가받았다.

그림1 당근 실적 추이: 2023 년 흑자전환, 2024 년도 순항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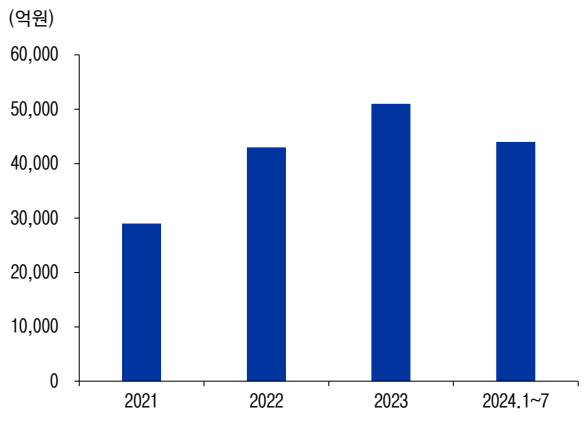
자료: 당근마켓, LS증권 리서치센터

표1 1H24 연령대/업종별 소비건수 증감률: 2030 세대 하락

업종	2030 세대	타연령대
악세사리점	-18%	-1%
시계전문점	-14%	-3%
고가커피	-13%	5%
기타숙박업	-13%	-2%
기성복점	-12%	2%
일반관광호텔	-11%	4%
귀금속점	-11%	-4%
펜션/민박	-7%	5%
기타관광호텔	-3%	1%
백화점	-3%	4%
저가커피	12%	26%

자료: NH농협은행,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당근 GMV 추이: 2023 년 5 조 1,000 억원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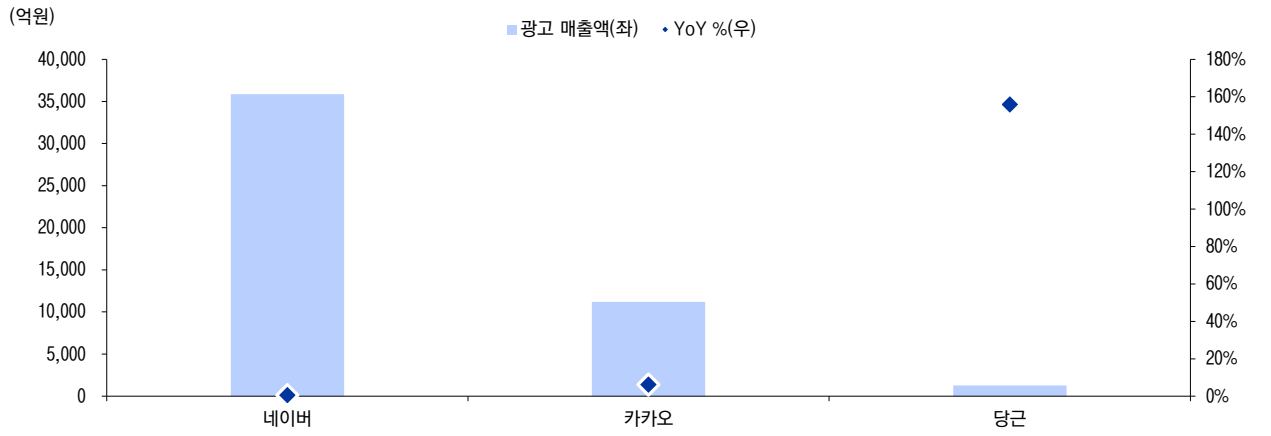
자료: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 LS증권 리서치센터

근거리 광고는 당근으로 통한다

2023년 당근의 실적 개선에 큰 기여를 한 부문은 광고수익이다. 2022년 494억원 수준이었던 광고수익이 2023년 1,266억원으로 급증하면서 영업이익 흑전을 기록했다. 지난 해 반경 타겟팅 광고를 도입하면서, 핵심 고객층에 더욱 효율적으로 광고를 집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광고 매출액이 급성장했다. 반경 타겟팅은 가게 주소지를 기준으로 반경 최소 300m부터 최대 1.5km까지 광고 노출 범위를 직접 설정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이와 더불어 지역 커뮤니티 활동과 관련된 기능을 추가하면서 체류시간도 증가했다. 이에 2020년 대비 당근 내 광고주 수는 2023년 6배 증가했고, 광고 집행 수는 9배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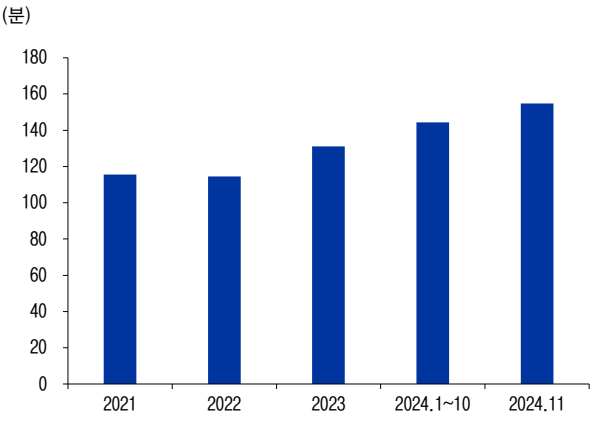
불필요한 구매를 자제하는 극단적 소비가 지속되면서 중고거래, 초저가, 근거리 소비 추구 등의 트렌드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소비 트렌드 속에서 당근은 사용자수 및 체류 시간 증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른 광고 수익 또한 계속해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한다.

그림3 2023 년 주요 플랫폼 연간 광고수익: 당근 YoY 156%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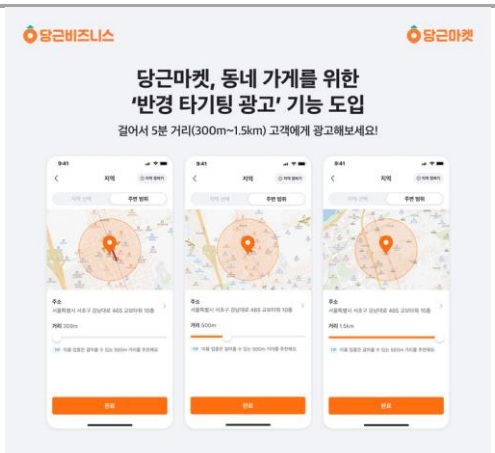
자료: 각 사,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당근 앱 1 인당 평균 사용시간 추이



자료: 당근,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당근 반경 타겟팅: 동네 가게를 위한 광고 상품



자료: 당근, LS증권 리서치센터

표2 **당근 투자유치 현황**

투자일	투자 라운드	투자금액	투자사
2016.12.12	Series A	13 억원	캡스톤파트너스, 스트롱벤처스, 카카오벤처스
2018.04.24	Series B	57 억원	소프트뱅크 벤처스, 스트롱벤처스, 카카오벤처스
2019.09.09	Undisclosed	400 억원	알토스벤처스, 굿워터캐피탈, 소프트뱅크
2021.08.05	Series D	1,800 억원	알토스벤처스, 소프트뱅크벤처스, 캡스톤파트너스, 카카오벤처스, 스트롱벤처스, 굿워터캐피탈, DST 글로벌, 에스펙스매니지먼트, 래버런트파트너스
2024.06.27	Undisclosed	200 억원	한국투자파트너스,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자료: 로아인텔리전스, LS증권 리서치센터

LS증권 리서치센터

LS증권 리서치센터

표3 국내 소비재/플랫폼 주간 수익률

	현재가 (pt, 원)	시가총액 (억원)	수익률 (%)						P/E			P/B		
			1W	1M	3M	6M	12M	YTD	2023	2024E	2025E	2023	2024E	2025E
코스피	2,456	20,114,214	-1.8	-6.2	-7.8	-8.3	-2.5	-7.5	-	-	-	-	-	-
코스피 대형주	2,448	16,796,328	-2.2	-6.5	-8.2	-7.7	-2.3	-7.7	-	-	-	-	-	-
코스닥	678	3,377,777	0.2	-8.9	-10.3	-19.1	-17.5	-21.7	-	-	-	-	-	-
코스피 중형주	2,728	2,383,980	0.5	-4.4	-5.7	-10.4	0.4	-2.1	-	-	-	-	-	-
코스피 소형주	2,095	828,022	-0.8	-4.1	-6.0	-12.0	-7.2	-8.4	-	-	-	-	-	-
유통														
코웨이	65,900	48,634	5.3	1.5	-4.9	17.5	30.8	15.2	9.0	8.3	7.9	1.6	1.6	1.3
호텔신라	39,600	15,542	2.2	-8.7	-16.6	-29.5	-38.7	-39.5	30.4	239.2	22.1	4.1	2.5	2.3
BGF 리테일	108,200	18,701	0.2	-4.0	-6.2	-8.5	-18.3	-17.6	11.6	9.8	8.9	2.1	1.6	1.4
GS 리테일	23,150	24,242	2.4	11.3	5.2	18.7	-4.3	0.4	136.5	25.8	12.2	0.6	0.6	0.6
롯데쇼핑	57,200	16,181	-1.4	-11.5	-6.5	-12.8	-25.5	-23.7	12.2	15.8	6.6	0.2	0.2	0.2
신세계	134,400	13,232	3.4	-9.9	-10.4	-16.9	-20.8	-23.3	7.7	5.9	5.3	0.4	0.3	0.3
이마트	64,300	17,924	3.9	1.3	0.3	4.6	-15.4	-16.1	-24.0	157.1	14.2	0.2	0.2	0.2
현대백화점	46,350	10,488	8.3	1.2	-3.4	-7.0	-9.1	-10.5	-15.2	54.6	4.8	0.3	0.2	0.2
SK 네트웍스	4,345	9,615	-2.7	-16.6	-14.0	-12.0	-25.0	-24.4	-1,933.6	10.0	14.6	0.5	0.4	0.4
인터넷														
NAVER	206,500	327,172	8.7	22.0	25.2	17.8	-0.5	-7.8	36.3	19.0	18.3	1.5	1.2	1.2
카카오	40,100	177,865	11.2	7.4	8.4	-8.3	-20.6	-26.2	-23.9	54.4	39.8	2.4	1.7	1.7
게임														
넷마블	53,000	45,555	6.5	-7.7	-13.5	-19.7	-10.0	-8.8	-19.5	21.2	24.3	1.0	0.9	0.8
엔씨소프트	237,500	52,141	9.7	11.0	23.8	22.2	-9.9	-1.3	24.9	56.4	21.5	1.5	1.5	1.4
펄어비스	39,650	25,474	-0.3	3.1	17.5	-1.0	2.7	2.3	163.7	254.2	18.7	3.3	3.3	2.8
카카오게임즈	18,150	15,005	10.3	5.0	-1.5	-11.7	-32.5	-29.8	-9.3	-69.7	27.0	1.5	1.1	1.0
더블유게임즈	51,300	11,027	4.9	1.4	3.7	19.0	33.1	27.4	5.8	6.5	6.0	0.9	1.0	0.9
NHN	17,590	5,939	3.6	6.4	-10.5	-19.9	-23.5	-24.7	-96.3	-7.7	9.6	0.5	0.4	0.4
웹젠	15,080	5,271	0.7	-6.9	-18.5	-8.6	1.9	-7.8	9.9	8.6	6.9	0.8	0.7	0.6
컴투스	48,900	6,229	8.6	20.9	22.9	19.7	-2.2	-0.7	15.9	52.8	17.0	0.5	0.5	0.5
화장품														
아모레퍼시픽	104,200	60,949	-4.5	-13.5	-15.7	-44.0	-21.6	-28.1	55.6	10.3	21.2	2.0	1.3	1.2
LG 생활건강	310,500	48,495	-4.6	-11.3	-12.5	-27.8	-6.3	-12.5	44.1	19.1	16.6	1.1	0.9	0.9
실리콘투	24,500	14,914	-4.9	-35.2	-33.1	-37.5	198.4	217.8	12.2	12.4	8.5	3.5	5.8	3.5
아모레 G	22,100	18,223	-0.2	-4.3	-10.5	-38.3	-21.6	-24.4	23.5	7.5	14.3	0.8	0.6	0.6
한국콜마	52,800	12,463	-2.4	-21.6	-19.0	-6.9	12.0	-1.5	236.2	16.4	10.7	1.9	1.7	1.5
코스맥스	133,000	15,095	0.4	-3.6	9.5	-20.0	18.2	5.2	25.1	16.5	12.2	4.0	3.4	2.7
브이티	29,100	10,417	0.7	-7.6	1.2	-6.1	59.0	78.3	21.0	12.2	9.2	5.0	5.2	3.3
코스메카코리아	50,300	5,372	-4.7	-31.6	-34.1	-2.5	42.1	38.6	17.4	12.6	9.5	2.3	2.5	2.0
씨앤씨인터내셔널	39,900	3,996	1.1	-39.9	-61.2	-55.6	-32.8	-36.1	19.9	9.7	7.9	3.6	1.8	1.5
클리오	17,140	3,097	-1.9	-20.1	-43.8	-57.0	-40.9	-44.4	20.1	9.6	8.6	2.5	1.3	1.1
한국화장품제조	44,300	2,008	-11.3	-40.6	-30.5	-9.2	86.1	89.3	14.6	0.0	0.0	1.6	0.0	0.0
아이패밀리에스씨	17,540	3,024	-7.8	-5.0	-23.6	-55.4	51.8	33.3	11.3	9.4	7.7	3.3	2.9	2.2
마녀공장	16,110	2,639	-1.0	-12.8	-22.2	-36.8	-32.2	-28.4	30.0	0.0	0.0	3.8	0.0	0.0

자료: Quantiwise, LS증권 리서치센터

주: 2024.11.29 종가 기준

LS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오린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투자등급	적용기준 (향후12개월)	투자의견 비율	비고
Sector (업종)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단계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Company (기업)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단계	Buy (매수)	+15% 이상 기대	93.9%	2018년 10월 25일부터 당사 투자등급 적용기준이 기존 ±15%로 변경
		Hold (보유)	-15% ~ +15% 기대	6.1%	
		Sell (매도)	-15% 이하 기대		
		합계		100.0%	투자의견 비율은 2023. 10. 1 ~ 2024. . 30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 (최근 1년간 누적 기준. 분기별 갱신)